테마칼럼

예술로의 초대 | 이재상 e재상 | 원고출에 살며 | 경제로 세상보기

중국어를 알아듣는 프랑스 청중들

이승우

> 통역 없이 중국 작가의 말을 알아듣는 프랑스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조금 놀라웠다. 중국어를 배우는 유럽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것은 일차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 때문이지만, 문학적 소통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기도 할 것이다.

엑상프로방스 대학과 시립 도서관이 주최한 '아시아 문학과의 만남' 행사에 초청을 받아 프로방스에 갔다 왔다. 지난주의 일이다. 4박 5일의 짧은 일정 동안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온 작가들을 만나고 프랑스의 아시아문학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을 가졌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아시아에서 온 작가들의 말을 듣기 위해 객석을 가득 매운 청중들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를 비롯하여 행사에 참석한 작가들 모두, 자기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는 소설책이 한두 권 번역되어 있을 뿐인, 무명작가나 다름없는 이들이었다. 특별히 이슈가 될만한 토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긴 시간 동안 불편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자발적인 청중들이 고마움을 넘어 의아할 정도였다. 문학을 비롯한 문화의 향유가 일상화되어 있는 표시로 받아들여졌다.

아시아 작가들이 이웃해 있으면서도 정작 문학적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새삼스러운 깨달음 가운데 하나였다. 비단 문학 행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의 작가들이 유럽을 통해 만나고 있다는 것이 서로의 독서 고백을 통해 드러났는데, 이번에 프로방스에 모인 아시아의 모든 작가들이 하나같이 근대 서양 문학의 영향을 토로했다. 아시아의 이웃 나라 소설을 거의 읽지 않거나 읽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이 대화를 통해 확인되었다. 중국 작가는 한국 문학을 모르고 한국 작가는 베트남 소설을 모른다.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점을 지적하여 모두들 서양 문학의 영향만 말하는데, 당신들 나라에도 문학과 고전이 있을 것 아니냐고 질문할 때 부끄러움을 느낀 건 나만이 아니었다.

지역적으로 가깝다는 것 말고,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것 말고, 아시아가 공유하는 공통의 문화적 코드가 무엇인지, 각국의 문학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의 동일성이 무엇인지 갑자기 궁금해졌고, 마음이 좀 심란해졌다.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일본과 중국을 깔보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시중에 나돌고 있거니와 은연중에 이웃의 문화와 정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세가 우리 아시아인들 속에 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잠재력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다른 나라 작가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중국 작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통역을 하기 전에 객석의 백인 청중들로부터 반응이 나타났다. 통역 없이 중국 작가의 말을 알아듣는 프랑스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조금 놀라웠다. 중국어를 배우는 유럽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것은 일차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 때문이지만, 문학적 소통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기도 할 것이다.

한국어 통역을 맡은 사람은 한국인인 데 반해 중국어 통역을 맡은 사람은 프랑스인이었다. 마침 엑상프로방스 대학에는 가오싱젠의 소설을 번역하여 노벨 문학상 받는데 기여한 교수가 있었는데,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소설 거의 모두가, 통역과 마찬가지로, 아직 한국인의 손을 통해 번역되고 있는 실정을 생각하면 여간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곳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엑상프로방스 대학의 김혜경 선생부부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프랑스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글 마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국문학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남편은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프랑스 남자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 1년에 한두 달은 꼭 한국을 방문하고, 프랑스에 번역된 한국 책은 모두 읽고 소장하며, 주역과 한의학, 특히 수지침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 실제 그는 속이 매스껍다고 하자 한국인인 나의 손바닥에 수지침을 놓아 속을 편하게 해 주었다. 붓과 벼루가 놓이고 서예 작품이 걸린 그의 집 서재는 100년 전쯤의 여느 한국인 선비의 서재를 옮겨 놓은 듯했다. 이들 부부가 요즘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한국 문학을 프랑스어로 옮기는 일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한국 문화, 특히 문학의 영역 확대를 위해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분들의 노고와 영향력에 의해 한국어를 통역하는 서양인, 한국 소설을 번역하는 유럽인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오싱젠처럼 문득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가도 나올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간의 두께와 폭이 함께 요구되는 일이다. 중국어를 알아듣는 프랑스 청중이 저만큼 생기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겠는지 생각해 보라. 〈소설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돔구장 좋긴 하지만 실익 꼼꼼히 따져야

광주에 돔구장이 들어선다고 한다. 포스코건설이 2만~3만5천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설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고, 4천억원대에 달하는 건설비용은 사업자 측에 돔구장 주변에 건설되는 스포츠·레저시설과 공동주택 개발권을 줘 충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새 야구장 건립은 오래된 광주시의 숙원사업이다. 따라서 전천후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돔구장의 건립은 환영할 만하다. 변변한 상징물 하나 없는 광주시로서는 돔구장이 랜드마크 기능까지 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도 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위상에도 걸맞는다 하겠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돔구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도쿄돔을 제외한 나머지 돔구장들은 만성적자다. 도쿄돔에서 프로야구 한 경기가 열리기 위해선 시설관리 필요인원만 250명이라고 한다. 모두 비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구장 사용료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질 게 뻔한데 누가 그걸 감당하려 하겠는가. 자칫 썰렁한 조형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수천억 원대의 돔구장을 기부채납하려면 최소한 3조~4조 원대의 사업을 벌여 수익을 내야 한다. 이에 따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실익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신도시 건설의 실효성과 환경 파괴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다만,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찬반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광주지하철 건설 당시의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돔구장이 됐든 일반 야구장이 됐든 새 야구장 건립은 광주시의 현안이다. 광주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집권세력에 경종 울린 '재·보선 민심'

국회의원 5명을 뽑는 10·28 재보선 결과 민주당이 3곳, 한나라당이 2곳에서 승리했다. 결과뿐 아니라 전체 득표면에서도 한나라당은 완패했다. 박빙을 예상했던 수원은 큰 차이로 졌고, 텃밭인 양산에서도 턱밑까지 쫓기며 가까스로 이겼다.

최근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나들고 경제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여권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는데도 한나라당이 패배한 이유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서민·중도실용정책이 실제 민생현장에서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국의 최대 이슈인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기도 하다. 청와대 직원들의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과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사회자 교체 등도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의석수를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정치는 결국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오만과 독주를 경계하는 민심의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거 결과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고 당권 경쟁의 득실이나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패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부자들이 더 혜택을 보는 감세 정책이나 성격이 애매한 중도실용정책, 세종시 수정 등 수도권 위주 정책에 대한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 서민들을 위한 여권의 모습을 국민들이 분명히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민주당 역시 이번 승리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라기보다는 여당에 대한 경계의미가 강한 이번 표심을 잘 읽어야 한다. 승리에 도취하기에 앞서 야당 다운 야당,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종교칼럼

현지 스님

인생가치관, 바르게 잡아주어야

어느 때 한 천신(天神)이 부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건넸다. "자식을 가진 자는 자식에 의하여 기쁘고, 소를 가진 자는 소에 의하여 기뻐한다. 사람의 기쁨은 의지하는 곳에 있다. 의지하는 곳 없는 자 기쁨도 없다." 이에 부처님은 대답하였다. "자식을 가진 자는 자식에 의하여 슬프고, 소를 가진 자는 소에 의하여 슬퍼한다. 사람의 슬픔은 의지하는 곳에서 생겨난다. 의지하는 곳 없는 자 슬픔도 없다." 하셨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라 했지만 부모들은 자식에게 인생 의지처가 된다. 그것도 딸애보다는 남아에게 그래서 남아를 선호하고 딸애보다 기쁨이 더 크다.

그에 비해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 참으로 많다. 아이 때는 밥 먹는 것이 시원찮아 걱정 병이 잦아 걱정, 말을 잘 듣지 않아 걱정, 청소년이 되면 공부하지 않아 걱정, 불량친구 사귈까 걱정,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나 걱정, 장년이 되어서는 취업 빨리 되어야 하는데 걱정, 결혼도 시켜야 하는 걱정, 결혼해 아이 낳으면 손자걱정까지 하는 것이 부모들이다.

걱정 속에 살지만 걱정을 잊으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지만 물을 잊고 산다. 새는 바람을 타고날지만 바람을 잊고 산다. 물고기와 새는 물과 바람 속에 살아가지만 그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는다.

부모가 걱정 속에 구속을 받지 않고 생활하려면 스스로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많은 부모들은 걱정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앞날을 걱정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 신경이 날카로운데, 가장 듣기 싫은 공부만 하라는 말로 기를 죽인다.

물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실력이 있더라도 대기업 취업도 고급관료 승진도 학연, 지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우리 사회 현실이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여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다른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아이들 마음이 달라진다.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흘러간 지난날의 보릿고개 환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재화(財貨)만이 가정생활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돈 버는 방법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문화정서가 풍부하지 못해서 생각이 짧고 인내력이 부족한 것이다.

다음달이면 67만 7천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장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 부모님들은 아들딸들에게 인생가치관을 바르게 잡아 주어야 덕망을 갖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기고

이욱현

다시 팔각정에 올라 디자인을 만나다

최근에 국가마다 도시마다 랜드마크격인 조형물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아 보인다. 우리 광주시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광주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상징물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광주는 유·무형의 상징 자산이 많으나 광주의 비전과 정신을 담아내는 예술적이고 구체적인 스펙터클은 역시 우리 세대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한 것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 프로젝트로 매회 상징조형물을 역사적으로 남겨두자는 것이었다.

이번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상징조형물은 무엇일까? 물론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상징조형물은 금회 행사를 기념하고 광주의 문화자산이 되어야 하며, 문화적 활력소로서 도시의 아이콘이 되어 시민의 삶과 밀착됨으로써 디자인 명소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우선, 2005년과 2007년 제 1, 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때 선정된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1회 디자인비엔날레 상징조형물은 "미래의 도시 광주:기원"으로 명명되었으며, 광주시청 광장에 세워져 있다.

이 작품은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광주를 방문한 이탈리아의 세계적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설계했다. 폭 18m, 높이 16m의 높낮이가 다른 7개의 원통형 지주가 위로 올라가면서 꽃잎처럼 펼쳐지는 이 조형물은 계절별로 옷(스킨)을 갈아입는다.

또 매일 12시와 3시, 6시, 9시 정시에 독특한 음향과 시보가 울리며, 기원의 둥지 속에는 갈매기의 꿈과 할미꽃의 소망이 담겨 있다.

광주시 청사를 방문한 외지인들은 예향답게 예술작품으로 마주한 광주에 대한 첫인상을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

제2회 디자인비엔날레 상징조형물은 "평화의 빛"으로 명명되었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 분수대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다. 조형물의 설계는 '빛의 마술사'로 불리우는 독일의 세계적 조명디자이너 잉고 마우러가 맡았다. 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소용돌이 물기둥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5·18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15.18m 높이로 세워졌으며 물기둥의 깊은 주름에 광섬유를 심어 은은한 조명을 연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3회 상징조형물은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낡은 건물에 디자인적 요소를 덧입힘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는 문화쉼터로, 기성세대들에게는 옛 명소를 되찾게 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사직공원 팔각정을 리모델링하기로 하였다.

리모델링에는 건축가 조병수가 대표작가로 나섰고, 미국의 색채 컨설팅 전문가인 질 필라로시아가 협업작가로 참여했다. 1973년 건립된 팔각정은 70~80년대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놀이공간이자 광주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광지"역할을 했었다.

양림동사무소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한 필자도 "더할 나위 없는" 데이트 코스로 팔각정을 즐겨 찾곤 했다. 젊은 날의 사랑과 추억이 되살아나 생각만으로도 행복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천고마비의 계절, 사직공원 팔각정에 한번쯤 올라 보자. 사직공원 아래 양림동 및 어울림 촬영 작품을 감상한 후, 근대문화역사 골목탐방을 테마로 하는 이장우 가옥, 최승효 고택, 수피아여고 홀 등으로 이어지는 '디자인비엔날레 문화열차'에 가족과 함께 탑승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만끽해보자.

〈광주비엔날레 재단 사무처장〉

차량번호 맘에 안든다고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해서야

경찰에 찾아가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했다며 분실신고를 하는 민원인을 자주 본다. 어떤 절도범이 자동차 번호를 떼어갔다면 그건 보통의 범죄나 절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차 번호판을 범죄 차량에 붙여 제2, 제3의 큰 범죄에 악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량 번호가 4982(사고빨리), 1818(* 팔* 팔) 등 특정 단어들이 연상되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번호가 특이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본다며 번호를 바꾸기 위해 경찰서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는 한번 번호를 부여받으면 바꿀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는 번호판 분실신고 후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은 경찰의 행정력 낭비를 부르고 민생치안의 경찰력을 뺏기게 하니 자제되어야 하겠다. ▲박준용·목포시 옥암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無等鼓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야심 차게 출시한 새로운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 7의 광고 문구다. PC 사용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못해 실패한 비스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비스타는 많은 사용자로부터 이전 운영체제인 XP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4년여의 침체를 겪어야 했다.

윈도 7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활은 이 운영체제에 성공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윈도 7은 시험기간 동안 기존의 운영체제보다 가벼워지고 빨라졌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광고문구대로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이 돋보인다는 평도 들었다.

우선, 윈도 7은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 부팅시간이 30초 이내로 XP와 비교했을 땐 2배, 비스타보다는 3배 이상 빨라졌다. 다른 PC에서 내 PC에 저장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스트리밍 기술도 탑재하고 있다.

또 운영체제 최초로 멀티 터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MP3기기 등 멀티미디어기기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강화됐다. 보안이나 호환성 문제도 기존 운영체제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비스타 초기에 있었던 인터넷뱅킹 대란 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침체일로에 있던 PC업계가 윈도 7 출시와 함께 부활하고 있다. 운영체제 70%를 점하고 있는 윈도XP가 출시 9년이 넘어가 이제는 세대교체 시기가 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윈도 7 보급에는 가격이라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다. 10만 원대 후반부터 30만 원대 후반까지 상식을 넘어선 고가다. 비스타 보다 일부 싸졌다고는 하나 운영체제를 거의 독점에 가깝게 공급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격정책은 여전히 폭압적이다. 자칫 불법 소프트웨어의 확산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기업의 횡포에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는지… 'IT 강국'이 허명이 되지않도록 당국이 나서야 할때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